

건설본부, 기술본부 및 지역본부간 사업관리 점검회의 가져

- 차질없는 예산집행과 개통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26일 공단 사옥 6층에서 올해와 내년의 예산 집행 및 주요 개통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건설본부, 기술본부, 5개 지역본부는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분야 간 업무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4분기 중점 사항과 장기 계획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지역본부는 연말까지 '12년 사업비 집행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대비 증가가 예상되는 '13년 예산계획을 수립·검토해 전역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올해와 향후의 개통예정사업이 조기 또는 적기에 반드시 개통될 수 있게 상세한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하여 국민 교통편의 제공 및 철도수요 확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설본부 김지훈 기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목표대비 231% 초과 달성

- 전기료 약 3400만원 절감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하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한 결과, 정부 방침 전년대비 5% 절감목표보다 231% 상회한 11.5%(약 341Mwh)를 달성해 전기료 약 34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하절기(6.1~9.30) 동안 ▲피크시간대 냉방기 제어 ▲점심시간 절전 및 야간조명 자동소등시스템 운영 ▲부재시 컴퓨터 절전모드 자동전환 ▲엘리베이터 격충·제한 운행 ▲실내온도 28℃ 유지 ▲실내의 LED등 교체 ▲화장실 손건조기 제거 ▲화장실 비데 대기전력 차단장치 부착 등을 적극 실천했다.

특히 호남 및 강원본부는 해안가인 지역특성을 고려해 냉방기보다 에너지 소비가 10분의 1 수준인 선풍기로 대체해 사용했으며, 하절기 지역을 방문하는 철도이용 고객들에게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전개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옥 출입구에 홍보게시물 설치, 포스터 게시 및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홍보 등으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설 역사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실내·외 LED등 교체, 고효율에너지 인 증 기자재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본부, 녹색철도자문회의 개최

- 환경분야 소통의 장 마련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철도건설현장 임무폐기물 재활용 등 폐목재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주제로 녹색철도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환경분야 NGO, 학계,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다뤄진 의견 중에서 현장 적용성 효과가 기대되는 사안은 세밀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리 자리를 통해 환경분야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함으로써 녹색철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로변 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 대전 연탄은행과 재개식 가져 -

공단은 지난 29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연탄은행과 '2012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을 갖고 연탄 3만장과 라면 100박스 그리고 연탄운반 리어카를 대전연탄은행에 기증하였다.

재개식 후, 임직원 100여명은 철로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50가구에 연탄 1만장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노후된 연탄창고를 수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해마다 겨울 추위를 걱정하는 철로변 소외 주민들에게 부족하나마 연탄 배달로 따뜻한 온정의 불씨를 전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단은 철로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대전연탄은행이 처음 문을 연 이래 해마다 대전·충청지역 연탄나눔행사 *재개식을 개최하여 그 동안 총 18만장(8000만 원 상당)의 연탄을 기증했다.

*재개식이란 그 해의 연탄나눔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공단의 재개식 후 약 6개월간 대전·충청지역의 연탄나눔 활동이 진행됨



시설사업본부, 「KR 푸른 사랑의 숲」 가꾸기 시행

- 화단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비 활동 전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지난 19일 산림청과 연계하여 조성한 신탄진 일원의 「KR 푸른 사랑의 숲」 공원 내에서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고 시설물 주변 및 등산로 환경을 정비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무의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펼쳐졌다.

본부는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단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시설사업본부 박경홍 기자>



충청본부, 책사랑 나눔행사 시행

- 샘골지역아동센터 도서 기증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20일 사회공헌활동 후원을 맺은 샘골지역아동센터(대전시 중구 목동)에 도서 130여권을 기증하는 책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본부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공부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자 직원들로부터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위인전집 및 각종 도서 등을 기증받아, 이를 전달했다. 또한 생일을 맞이한 학생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나눠주며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본부 봉사단 관계자는 "KR봉사단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변함없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본부 김건조 기자>

계시판

주요뉴스 (10. 17 ~ 10. 29)

- 백두대간 환경지문단 발족(강원도민 10. 17)
- "신강릉역 지하화 공정 검토"(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10. 17)
- 공직사회 기강이 이래서야세계일보 10. 17)
- "신강릉역 역사만 지상에 건설하는 방안 검토" (강원일보 10. 18)
- "전철 진접선 조기 착공 노력" 남양주시·노원구, 공동보조 (중앙일보 10. 18)
- 코레일, 용산개발 '도 아님 모' 승부수 (중앙일보 10. 18)
- 세종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주민들 반발 (중앙일보 10. 18)
- "원주~강릉 복선전철 통해 연장 바람직"(강원도민일보 10. 19)
-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해"(경기일보 10. 19)
- '송도~청량리' GTX건설 속도내다(경인일보 10. 19)
- 민자사업자 불패신화 켄 '최소수익 하한선' (한국일보 10. 19)
- 공무원들 '정부 조직개편안' 촉각서울경계 10. 19)
- 춘천~속초 고속철 운영 24일 국감서 결정(강원일보 10. 20)
-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 위기(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10. 20)
-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없앤다(국민일보 10. 20)
- 세종시 공무원 조기정착 지원 논란(매일경제 10. 20)
- 교통시설투자 효율성 우선해(서울신문 10. 22)
- 철도공단 도담~영천 복선전철 4개공구 노반공사 발주(충청투데이 10. 22)
- 동서고속철 사업비 미집행, 제대로 짚어(강원일보 10. 22)
- KTX 울산역 내달 1일로 개통 2년...엇갈린 화비(동아일보 10. 22)
- 세종시 효과 KTX 오송역 활기(충청투데이 10. 22)
- GTX 롤러진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동아일보 10. 23)
- 전철변전소 시스템 국산화 (충청투데이 10. 23)
-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경고 파업 (서울신문 10. 23)
- KTX호남선 '대전 경유' 힘 모은다 (충도일보 10. 23)
- 정권 출범 때마다 부채 쪼갬다 합했다 고위직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도 치열 (중앙일보 10. 23)
- '장병 도시' 논산, KTX역 추진 나섰다 (국민일보 10. 24)
- 에너지 절약 목표 초과달성 (대전일보 10. 24)
- 철도대란 3년만에 재연되나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대전일보 10. 24)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연내 추진 무산되나 (강원도민일보 10. 24)
- 우리는 왜 비싼 KTX만 타야 할까 (한겨레 10. 25)
- 기흥~망포 구간 최종 점검 (경기일보 10. 25)
-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기대 물거품 (한국일보 10. 25)
- 2000만원부터 1억까지... 공공기관 연봉도 '분부격차' (조선일보, 서울신문, 국제신문, 충청투데이 10. 25)
- 12월 기흥~망포 준공... 강남까지 1시간 (조선일보 10. 25)
- 환경·사회적 성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동아일보 10. 25)
- 생태계 고려한 철도망 구축 철도시설공단 'KRCA' 수상 (파이낸셜, 중앙일보, 충청투데이 10. 26)
- 텅텅 빈 4개월... 의정부도 경전철 (중앙일보 10. 26)
-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요금 100원 인상(경향신문 10. 26)
- KTX 울산역 환승센터, 가족형 복합시설 개발(서울경제 10. 26)
- 경전선 조기착공 등 현안 해결 공조(광남일보 10. 26)
- 경부고속철 폐레미콘 사용의혹 허위로 판명 (충청투데이, 경북일보 10. 29)
- 복선철도(원주~강릉)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연다 (강원도민일보 10. 29)
- 철도변 무허가주택 1억 번상금 폭탄 (매일경제 10. 29)
-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에 총력 (조선일보 10. 29)
- "성정색? 고동색! 경부선 지하화하라" 260만명 행동 나섰다 (서울신문 10. 29)

경조사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박주향 차장 결혼
 - 일시: 2012년 10월 28일(일) 오후 6시
 -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테라스
- 시설본부 전철전력처 손동식 과장 부친상
 - 발인: 2012년 10월 31일
- 충청본부 건설처 강철호 과장 결혼
 - 일시: 2012년 11월 3일(토) 오전 11시
 - 장소: 필리핀 마닐라 Jethro resort
- 영남본부 건설처 우일권 사원 결혼
 - 일시: 2012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 장소: 경기도 수원시 불광동W
- 건설본부 김영국 본부장 모친상
 - 발인: 2012년 11월 5일
-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하승연 사원 결혼
 - 일시: 2012년 11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렐